나에 관해서

KCIS에 들어가게 된 것은 중1 2학기 때이다. 그 전에는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1 1학기에는 아주 산골에 있던 기숙사 국제 기독학교를 다녔었다. 그 학교에 간 이유도 단지 학원을 안다닐수있고 부모님 간섭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비싼 사립학교에 들어갔었다. 이때는 정말 영어를 못했던 때이다. 일반학교에서도 못하던 편인 영어를 국제학교의 영어수업 따라가긴 쉽지 않았다. 첫시험으로 40점을 받았을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아무 생각 없던 나는 혼자 생활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사회와 격리된 시골 기숙사에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고 난 이때부터 나 자신의 발전에 기울였다. 이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운동도 시작했다. 또 한창 키크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하던 때이기도 하다. 기숙사는 일요일 입소였는데 다른 학생들은 모두 저녁 10시에 입소할 때 난 부모님이 바쁘셔서 낮 4시쯤에 항상 입소했다. 4시부터 10시까지 홀로 기숙사 숙소에 있는 건 지옥과도 같았다.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며 이 시간을 보냈다. 가끔 너무 외로운 기분이 들어 혼자 울때도 있었다. 핸드폰도 없던 이 시기, 난 책을 읽으면서 혹은 홀로 재밌는 상상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때 읽은 책인 오두막과 천로역정은 내 중학교시절 가치관이나 책 취향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한 학기가 끝난 뒤 난 그 학교의 너무나 열악학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국제학교로 전학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오게 된 곳이 바로 KCIS이다. 예전에 다니던 학교와 다르게 KCIS는 사뭇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생각해보면 이곳도 그리 자유로운 학교는 아니다) 핸드폰 사용이 가능했고 매일 드렸던 새벽예배도 없었으며, 선배들의 얼차례도 없었다. 부끄럽지만 사실 이때부터는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하진 않았다. 물론 학교성적은 all A를 받았지만 저학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난 참 사람들 분위기에 잘 따라갔던 것 같다. 그렇게 한 중3때까지 큰 생각없이 지냈다. 아마 이때가 나의 중세시대였다고 생각한다. 그냥 공부하는게 싫지는 않아서 했다. 점수 받고 애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좋았고 역사나 문학은 그냥 재미있어서 했다. 시간이 지나고 진로를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참, 난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딱히 없었다. 역사와 문학은 좋아했지만 전공으로 가긴 정말 싫었다. 그래서 꿈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다. 재능있던 광종이나 미술하는 애들도 부러웠다. 하지만 난 장래희망도 가고 싶은 전공도 없었다. 또 내가 왜 대학을 가야되고 이 고생을 해야하는지 알지 못했다.

 11학년 유일하게 즐기던 수업은 맥쌤의 미국 문학 시간이었다. 청교도 정신, 낭만주의, 초월주의, 자연주의, 현대주의 문학 등을 보면서 내 가치관과 세상을 보는 관점자체가 많이 뒤흔들렸다. 가장 영향을 준 두 작품을 뽑자면 Ralph Waldo Emerson의 Self-Reliance와 H.W. Auden의 Unknown Citizen이 있다. 특히 Unknown citizen이란 시는 읽자 마자 귀가 빨개지는 창피함을 느끼며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사회에 생각없이 순복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그저 모범적인 학생이 되길 원하던 난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준 시였다. 이후에 내가 빠진 것은 사회 불순종에 관한 현대 문학이였다. 그러다 우연히 읽게 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는 내가 후에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기까지도 많은 영향을 줬다. 물론 이 책에서 나보코프가 주고자하는 메시지는 이런게 아닐거라 난 확신한다. 다만 작중 험버트의 비상식적이고 비 인륜적인 태도조차도 사회가 정해 놓은 규율과 moral 과 상식이라는 굴레를 부수며 자신이 정말 갈망하던 것을 바라는게 신기하고 왠지 모를 동경심까지 들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기합리화속 무너져가는 험버트를 보며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란게 참 묘하고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 때 마침 AP시험 보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과목 보면서 정해보자는 식으로 AP Cal과 AP Chem을 들었었다. 이때 난 처음으로 공부란 정말 끔찍하고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 일단 chem은 포기하고 다른 과목, 진짜 내가 좋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을 찾아봤다. 컴싸도 해보고 여러 과목도 해보다가 눈에 들어온게 심리학이였다. 당연히 공부한적도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다. 그냥 정말 알 수 없게 이끌리어 책도 사고 혼자 인강도 찾아가면서 공부했다. 강의하시는 분이 재밌던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재미있게 공부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며 그로 인한 결과나 행동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했고 어쩌면 내가 오래 고민하던 문제들 모든 것의 해답이 이곳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때 난 처음으로 대학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좋은 환경과 좋은 교수, 나와 비슷한 관심사와 이러한 의문을 나눌 수 있는 동료와 학생을 갈구한다. 또한 대학에 가서 연구하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불합리한 굴레를 벗어나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싶다.

 난 미쳤다는 말을 참 좋아한다.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이며 세상이 정해 놓은 상식에 억압당하지 않는 참 자유인이다. 남들의 성공과 남들과 같은 가치관을 좆는 쪽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시인 Emily Dickenson 또한 미국에서 유명한 괴짜였지만 이러한 사람이야 말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일깨워줄수있다고 생각한다. – 필요없음